

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지난호에 이어)

시설(施設)

12

그러나 평왕은 이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고, 신하들도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왕을 시해한 적도를 토벌하고자 하는 요정을 올리지도 않았다. 부자와 군신의 윤리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 왕실이 어찌 격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으리오? 자신이 도리를 잃지 않았는데 민심이 떠나거나 배반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평왕은 안으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어머니의 집안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쇠잔하고 미약하여 국력을 떨치지 못하고, 위엄있는 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으니, 민심은 안에서 떠나고 제후들은 밖에서 배반하여, 이름만 천왕(天王)이지 사실은 이미 열국과 같은 처지가 된 셈이다. 그러므로 <서리> 이후로는 세상에 다시는 ‘아(雅)’가 있지 않게 되었다.

예컨대 남나의 윤리가 어지러워지자 「정풍(鄭風)」이 변하였고, 금수 같은 행동이 일어나자 「제풍(齊風)」이 변하였으며, 나라의 정치가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신하와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떠나자 「위풍(魏風)」이 변하였다. 「당풍(唐風)」이 변하니 임금들 오랑캐들이 중국에서 떠나자 「진풍(秦風)」이 변하니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순장하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꺼리하지 않았으며 오랑캐의 풍속으로 중국에서도 사람의 모양을 본뜬 인형을 만들었으며, 책을 태우고 선비들을 산 채로 땅에 묻는 화의 싸이 되었다. 「진풍(秦風)」이 변하니 음란한 풍속이 번지고 간하는 신하를 죽이고 임금이 시해되고 나라가 망하여 오랑캐들이 중국에 들어와 「변풍(變風)」이 끝나게 되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부부의 도리가 위

풍(衛風)에서 변하였고, 부자와 군신의 윤리가 「왕풍(王風)」에서 어긋나게 되었고 찬탈하고 시해하는 반란이 「당풍(唐風)」에서 이루어졌고, 오랑캐의 풍속이 「진풍(秦風)」에서 쓰여졌고, 시해하고 반역하여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화가 「진풍(陳風)」에서 극에 달하였다. 그런 후에 잘 다스려지기를 그리워하는 「회풍(邠風)」과 「조풍(曹風)」으로 이루어졌고, 주공의 「빈풍(邠風)」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니, 어지러워도 다시 잘 다스릴 수 있고 변화여도 다시 바르게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변풍(變風)’ 열세 나라의 차례다.

아!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요, 조정은 교화의 근원이다. <백주>가 변하자 위(衛)나라가 멸망하였고, <서리> 이후 주 왕실이 쇠약해져 열국(列國)의 풍에 이르게 되어서는 인륜이 크게 변하고 천하게 여겨지니 위나라에 위나라에 시집을 왔고, 송 양공의 어머니도 위 나라로 시집왔으니, 그 시들이 모두 「위풍(衛風)」에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수(泉水)>와 <채지(載馳)>와 <죽간(竹竿)> 등의 시들은 위 나라 여인이 제후에게 시집을 가서 지은 것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풍’에 있어야 당연하다. 예컨대 <백주> 등의 시편은 제 나라 여인이 지은 것이지만 위 나라에서 채록되었다. 후자가 이르기까지 <천수> <채지> <죽간>의 세 시는 모두 위 나라와 관련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천수>에서는 ‘위 나라를 그리워하여 [有懷于衛]라고 말하였으며, <채지>에서는 ‘돌아가 위후를 위문하리라[歸而衛]」 뒤에 <기유(淇奥)>를 이어 무공(武公)으로써 일국(一國)의 희망을 걸었으며, 열국의 끝에 가서는 「빈풍(邠風)」을 이어 주공(周公)으로써 천하의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주공과 같이 으뜸가는 성인이 아니고서는 어찌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풍’은 주공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아’는 소공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다. 옛날 주 나라 초기에 주공은 국내에서 정치를 하였고 소공은 국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외에서 교화를 넓혔다. 위정자가 주공 같다면 조정의 기풍이 아름답게 바뀌어져 ‘변풍’이 바르게 될 수 있고, 교화를 펼치는 자가 소공 같다면 위축된 나라가 날로 넓혀지고 ‘대아’가 다시 지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시를 산삭(刪削)하면서 주공과 소공으로 ‘이남’을 시작하고 ‘풍’과 ‘아’로써 마무리를 지어, 천하와 후세사람들에게 기대한 깊은 뜻인 것이다. 아! 은미하도다.

13

위(衛) 나라에는 부인과 관련된 시들이 있다. 예의를 알고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장강(蔣姜)에서부터 송 양공(宋襄公)의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섯 사람이다. 장강과 공강(共姜)은 모두 제(齊) 나라 여인들로 위 나라에 시집을 왔고, 송 양공의 어머니도 위 나라로 시집왔으니, 그 시들이 모두 「위풍(衛風)」에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수(泉水)>와 <채지(載馳)>와 <죽간(竹竿)> 등의 시들은 위 나라 여인이 제후에게 시집을 가서 지은 것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풍’에 있어야 당연하다. 예컨대 <백주> 등의 시편은 제 나라 여인이 지은 것이지만 위 나라에서 채록되었다. 후자가 이르기까지 <천수> <채지> <죽간>의 세 시는 모두 위 나라와 관련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천수>에서는 ‘위 나라를 그리워하여 [有懷于衛]라고 말하였으며, <채지>에서는 ‘돌아가 위후를 위문하리라[歸而衛]」 뒤에 <기유(淇奥)>를 이어 무공(武公)으로써 일국(一國)의 희망을 걸었으며, 열국의 끝에 가서는 「빈풍(邠風)」을 이어 주공(周公)으로써 천하의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주공과 같이 으뜸가는 성인이 아니고서는 어찌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풍’은 주공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아’는 소공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다. 옛날 주 나라 초기에 주공은 국내에서 정치를 하였고 소공은 국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27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대행대왕(인종)께서는 동궁에 계실 때부터 학문에 몰두하심으로써 수신(修身)·제가(齊家)의 도를 실행하셨고 보위를 계승하심에 미처서는 정사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도 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도(公道)의 유행이 마치 햇살이 밝게 퍼지는 듯 하였으므로 인심이 엄숙하게 되어 모두들 지치(至治)의 구원을 기대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이 망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원군 신민이 서로 죽을 듯이 애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대업을 이으시어 일국 신민이 바야흐로 대행왕에게서 기대하던 것을 전하게 기대하고 있으니, 그 기미가 매우 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우시려고 일국의 기대를 매어 놓는 것이 실로 오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양궁(兩宮)께서는 깊이 유념하소서.”라고 하였다.

영의정 윤인경 등과 우친선 총재 선생이 이어 아뢰기를, “진계(進戒)할 일이 분디 한풀이 아닙니다만 조정(朝政)에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대저 이보다 그 시초에 근신함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초정에 근신하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됨이 되지 못하여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유종의 미를 얻으려면 시초를 삼가 해야 한다.’ 하였고, 또 ‘끝을 처음에서 삼가라.’ 하였습니다. 신들의 무궁한 마음은 요(堯)·순(舜)의 사업을 전하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위에서 신들의 소망이 이러한 것임을 아시고 이 일을 심상하게 여겨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유념하소서.”라고 하니,

자적인 문정왕후가 답하기를, “이 훈계를 보니 심정이 실로 망극하다. 무릇 인정은 자기 자제를 어질게 하려 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비록 필부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국가의 중기(重器)를 맡아 인신(人臣)의 주인이 된 자이겠는가. 비록 일일이 다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게달한 대로 교훈하려고 한다.”라 하고, 대전인 명종은 답하기를, “항상 여기에 유념하여 한결 같이 아뢰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해 8월 11일에 경연 조강에서 ‘소학’을 강의하고, 영종추부사 겸 영경연사이며 원산인 홍인필(洪弼弼, 1476-1549) 등이 그 뜻을 아뢰고 난 후에 지경연사인 총재 선생이 아뢰기를, “천지 사이에서 사람이 가장 영묘(靈妙)하고 천품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학문을 한 뒤에야 고금의 사실과 의리의 근원을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대응함에 모두 그 정당함을 얻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8세에 소학(小學)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그 곳에서 배운 책은 보지 못하였고, 주자(朱子, 남송, 1130-1200년)가 처음으로 “예기”중에서 뽑아내고 또 옛사람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모아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힘써 배우면 시원하게 통달하게 되어 마치 나무를 심는 자가 그 뿌리는 북돋우고, 건물을 세우는 자가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 같은 것이니 모든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대할 때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라 하고, 시간(司諫) 박광우(朴光祐, 1485-1545)가 아뢰고 난후에 집의(執議) 송희규(宋希奎, 1494-1558)가 아뢰기를, “주공(周公)은 (조카) 성왕(成王; 무왕의 아들, 재위: BC.1024-1005년)을 보좌하면서 전후 좌우에 바른 사람만 있게 하고, 바른 일만 보게 하고, 바

른 말만 듣게 했기 때문에 성왕의 학문이 천고에 뛰어났습니다. 한 소제(漢昭帝; 무제武帝의 소자少子, 재위: BC.87-74년)는 8세에 즉위했는데도 타고난 자질이 영민하여 광광(霍光)의 충성심과 상관직(上官桀)의 거짓을 알았으니 진실로 성왕의 자질보다 못하지 않았는데, 광광이 학술이 없어 성정(誠正; 성의정심)의 학문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중등 임금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전하게서는 어린 몸으로 즉위하였으니 대신들은 주공이 성왕을 보필한 법도를 본받고, 전하게서는 대신의 말들을 성심으로 대하셔서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고 공인이나 환시(宦侍)의 말은 심중에 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언동과 호령이 모두 정도(正道)에 맞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이미 바로고 대신을 신뢰하며 대간과 시종(侍從)의 말을 듣는다면 종묘사직과 생민의 복이 무궁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곽순(郭詢, 1502-1545)과 다시 박광우가 아뢰고 난 후에 총재 선생이 다시 아뢰기를, “좌우의 모든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를 어질다고 한 뒤에 등용하고, 모두를 죽여야 한다고 한 뒤에 죽인다는 것은 공문을 따라야지 독단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심혼은 끝까지 가라워 수가 없어 진실로 사심(邪心)이 있다면 모를 리가 없게 됩니다. 대행대왕께서 전하게 전위하시어 온 나라를 주셨으니 일이 막중합니다. 낫으로 효성을 잊지 마시고 조종께서 부탁하신 중임을 생각하시면 국가의 모든 일이 반드시 잘 처리될 것입니다. 대행대왕께서는 공도(公道)도 일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즉위하신 지 오래지 않아 중의가 얼룩(脫服)하였으니 상께서도 모름지기 공도를 생각하소서. ‘방심을 거두라.’ 고 한 말은 맹자의 말이며 ‘대본(大本)을 세우라.’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晚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권씨 부자는 전통 儒家의 仁義禮智와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사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1. 전통유가의 “仁”의 사상학설을 설명함

우선 그들은 ‘생’으로 ‘仁’을 해석하고 ‘仁’이 “天地生物之心”이 된다는 사상을 강조하여 天地에 생기가 충만한 이유는 바로 ‘仁’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仁’은 곧 生長인데, 만약에 생하지 않고 길하지 않는다면 仁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하여 곧 도덕관념이 되는 ‘仁’이라는 것은 天地의 生物之心이다”라는 것은 또 현실세계가 하나의 충만한 생기의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권씨 부자가 이렇게 ‘生’으로써 ‘仁’을 해석한 사상내용은 확실히 고대 儒家경전 “周易”의 “天地의 가장 큰 덕은 생기이다”라는 관점을 계승한 것이며, 아울러 송대 유명한 理學家 程顥의 ‘生’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니, 즉 이른바 ‘천지의 큰덕을 생기라 한다. 천지에 원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생육하니... 만물의 생기가 가장 불만하다. 이것이 하여 完者善之長也, 欺所謂仁也”(程氏遺書) 卷11)이다. 현실적인 인간세상은 생기가 넘치는 세계이니, 선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땅히 현실적인 인생에 착안해서 修齊·治平을 강구해야지 마치 佛道처럼 허무하고 아득한來世와 仙境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天地의 心이 ‘仁’이

된다고 강조한 이유는 또한 人心이 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에 있으니, 이른바 “仁者, 心之所具之理, 而人之所以爲心, 不過曰仁”(晚悔集·僭擬) 卷4)인 것이다. 이와같이 곧 그들은 심성론 중에서 천지의 성이 본래 善하다고 주장하는 관점과 연관이되면, ‘仁’은 愛의 근원이며, 仁이 없이는 愛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立人達人”, “博施濟衆”은 모두 ‘仁’의 도덕사상의 발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들이 ‘生’으로써 ‘仁’을 해석하고, ‘仁’이 “天地生物之心”이 된다고 본 사상의 표현이며, 또 공자 유가의 “仁者愛人”에 대한 ‘仁學’ 사상의 발취이다. 이는 바로 그의 공자의 ‘忠恕’ 도덕관념에 대한 해설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生’으로써 ‘仁’을 해석하고, ‘仁’이 “天地生物之心”이 된다고 본 사상의 표현이며, 또 공자 유가의 “仁者愛人”에 대한 ‘仁學’ 사상의 발취이다. 이는 바로 그의 공자의 ‘忠恕’ 도덕관념에 대한 해설과 같은 것이다.

즉 사람을 대함에 있어 진실로 하는 것을 ‘忠’이라 하였고, “己所不欲 勿施於人”을 ‘恕’라고 한다고 생각했다. 忠은 곧 忠의 적극적인 면이며, 忠·恕 두 字를 연결시키면 공자가 해석한 바의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인 것이다. 權得己는 “立人達人”, “博施濟衆”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공자의 仁學사상, 즉 이른바 ‘夫子之道, 忠恕而已’(“論語·里仁”)에 크게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그러나 권득기가 말한 “立人達人”과 “博施濟衆”은 결코 墨子の “兼愛”와 韓愈(退之)의 “博愛”는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博施濟衆”이 비록 兼愛의 주장과 서로 비슷한 곳이 있으나, 또한 다른 곳도 있으니, 반드시 “精察”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退之言博愛之謂仁愛, 是仁之事, 仁是愛之理, 博愛是仁之功用, 仁是博愛之源頭, 若乞言仁之述, 而謂博愛爲仁, 則亦可. 若眞以博愛爲仁, 則不可.(同上書, 券1)”라고 하여, 그는 ‘仁’과 ‘博愛’를 엄격히 구분해서 ‘愛有差等’이라는 도덕적 윤리전통을 옹호하였다.

세 번째, 주자가 말한바 ‘仁’은 ‘心之德, 愛之理’라는 관점을 명백히 논술하여, “仁者能愛人能惡人”의 도덕 사비기를 밝혔다. 권득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우선 仁義禮智인 ‘心’의 四德을 끌어내어서 ‘仁’을 주로 삼고 義·禮·智를 차로 삼고 ‘仁’에 중속시켰다. 두 번째는 仁은 愛의 理이며, 義는 즉 愛가 그 울바름에 합치한 것이다. 그리고 禮·智는 곧 “皆是愛之推而欲其盡愛之道也”이라는 도덕적 사비기준을 분명히 알게끔 하고자 한 것으로, 즉 ‘愛惡之道를 밝히서’, “좋아할 만하면 좋아하고, 미워할 만하면 미워함이 모두 합당하니, 그런 후야 그 愛를 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절대로 善·惡을 나누지 않고 是非를 밝히지 않는 愛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이와같이 是·非·善·惡의 愛를 밝히려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光海君이 집정한 동안 조정은 암환했으며, 몇몇 사대부는 ‘私黨’으로 시비를 뒤바꾸는 비열한 지경에 빠져서 非가 是가 되고 惡이 善으로 행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若以私意橫者胸中, 則人之所以言義理之正當者, 乃反以爲不義, 我之所爲雖極滔天之惡, 乃反以爲至善之所在. 至今士大夫多陷於此, 此不處心之過也, 可不戒哉(同上)”라고 하였다. 즉 是非를 밝히고 善惡을 분별함으로써 진정으로 ‘心’의 四德(仁義禮智)에 포함되는 도덕기준에 도달하여 ‘以全其愛’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성인들의 사상



(지난호 이어서)

퇴계의 소(劄)중에는 내우외환에 대한 통찰과 탁견이 엿보인다. 특히 무진 옥조소(戊辰六條疏)는 68세의 노신으로 어린 선조의 장래를 근심하는 일념에서 썼다. 차(劄)도 많이 남겼지만 진성학 십도차(進聖學十圖劄)는 퇴계의 유학사상의 진수를 보여준 알찬 저작이다. 이 저작실도는 경연(經筵)에서 진강한 일이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 존송하였다. 퇴계가 예조로서 대마도주에게 보낸글은 당당한 격조 높은 글로 우리의 주체성을 뚜렷이 드러내어 국위를 선양한 것이다. 또 잡저 중 천명도설도서서(天命圖說圖與序)는 사철론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글이며 심경후론(心經後論)도 중요한 글이다.

퇴계가 일생을 통하여 주자서(朱子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그의 역저였으며 후학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향림약조서(鄕約條序)에서 퇴계는 향약에 관한 사상을 알 수 있으며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發) 등은 자연에 대한 정취를 집적케 한다. 그는 노후에 수학에 관심을 가져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다년간 연구 근본원리를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劄

퇴계이황

진성학십도차

깨쳐 계몽전의(啓蒙傳疑) 저술하게 된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의 서문에서 “주부자(朱夫子)는 도덕이 높고 경(經), 전(傳)의 뜻을 밝혀 후세에 가르친 것이 귀신에 몰어도 의심이 없고 백대 후 성인이 의혹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종조에 주자대전을 발행하니 황(冕)이 입수하여 시골에서 읽여보니 그 뜻이 무궁함을 깨달았다. 그 전서는 ‘땅이 만물을 싣고 바다가 온갖 것을 포용한 것과 같아서 없는 것이 없으니 어려워서 그 요(要)를 얻기 어렵다. 사람의 학문의 천심(淺深)을 따라 병을 살펴서 약을 쓰며 심법이 엄하고 정밀하다’. 참 지극하도다. 그중에 학문에 관계되는 것만 뽑아 주변에 나누어 쓰기를 마치니 14권 7책이나 본서의 3분의 2이다. 옛 성인의 글에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이 있으며 정(程), 주(朱)가 칭송하는 논어(論語)가 가장 학문에 필요하다 함은 그 뜻이 또한 이와 같다. 공자의 말에 ‘학자가 나아가지 못하는 도(道)의 문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마음을 비우고 뜻이 겸손하여 다스리기를 즐기지 않은 까닭이다’ 하였으니 독자가 마음을 비우고 부자의 훈계와 같이 하면 들어갈 곳을 얻으며 엄한심법(嚴心法)도 통하고 이략(伊呂)을 거슬러 수사(洙泗)에 달하여 성경(聖經)과 현전(賢傳)은 모두 자신의 학문이 될 것이다.”하였다.

퇴계의 많은 저술 중 무진옥조소와 성학십도차의 요지와 천명도설만을 소개하고 계몽전의의 심오하고 착란한 이치를 분명히 밝혔으나 이수(理數)의 학

문이 너무 넓고 미묘하며 복잡하여 난해하므로 생각하니 연구하려는 이는 원전을 참고 바란다.

무진 옥조소(戊辰六條疏)–요지

송정대부(崇政大夫)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臣) 이 황(李滉)은 삼가 재계(齎戒)하고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리며 주상 전하(主上殿下)께 아뢰나이다. 들이켜 보건대, 신이 이변에 나와서 외람되이 은총을 내리심을 입은 것이 이미 보통과는 다르니, 이에 감히 문자를 통해서 의사를 통하고 글을 지어 추론해서 6조로 나누어 만들어 주상 전하게 바칩니다.

첫째는, 계통(繼統)을 중히 하며 인효(仁孝)를 온전히 하소서. 효(孝)에 부끄러움이 있고 인(仁)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가 많고 이론(彝倫)의 죄를 얻는 자가 더러 있으니, 어찌 가히 깊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주역에서는 하나를 이루는 것[致一]을 밝히고 맹자는 두 근본(二本)을 경계하였습니다.

마땅히 높이는 데는 곧 성왕의 정법(定法)이 이와 같고, 마땅히 낮추는 데는 곧 선유(先儒)의 정본이 있으니 가히 본받아야 할 것이어서 한 번 용승히 높이는 것과 한 번 깎아 낮추어 있어 바로 이것이 천리와 인륜의 극치인지라. 한결같이 이를 준수하여 조금이라도 사로운 뜻으로 그 사이에 섞여 둘 수는 없는 것이요니, 그런 연후에야 인을 행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가히 의논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다음호에 계속)